취업주부와 비취업 주부의 삶의 질에 대한 인과모형 분석*

The Analysis of Casual Model of Quality of Life for Employed Wives and Unemployed Wives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 수 고 정 자
강 사 김 갑 숙

Dept. of Home Management, Dong-A Univ.
Professor : Jung Ja Ko
Lecturer : Gab Sook Kim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and tests a casual model of cohesion, adaptability, the level of stress recognition, coping starategies and quality of life for employed wives and unemployed wives.

For the data set 205 employed wives and 200 unemployed wives living in Pusan were chose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M, SD, t-test, multiple regression, and path analys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stress recognition and quality of life are higher for employed wives than unemployed wives. Cohesion is higher for employed wives than unemployed wives. Whereas adaptability is higher for unemployed wives than employed wives. Employed wives are greater use of coping starategies than unemployed wives.

Second, For employed wives, adaptability, the level of stress recognition, and coping starategies have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quality of life. Besides, wife's level of

* 본 논문은 1996년 제 18차 세계가정학회 poster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education, age of the youngest child, working hours, employment motivation, and cohesion have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quality of life.

For unemployed wives, cohesion, adaptability and level of stress recognition have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quality of life. Besides, wife's level of education, number of children, religion, and husband's housework participation are indirectly associated with quality of life.

From these results, the proposed model is generally supported by the data.

Ⅰ. 서론

인간의 궁극적 목표는 삶의 가치와 행복의 추구에 있다. 과거에는 행복의 기준을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 촛점을 맞추어 끊임없이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경제수준의 향상, 물질문명의 성장으로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왔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빈부의 격차, 환경오염, 사회 범죄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생활의 양적 측면에서 질적 측면으로 사회의 관심이 이전되어 가고 있다.

최근 삶의 질은 국가의 복지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삶의 질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수준 향상으로 국민소득 일만불시대에 접어들어 세계의 경제대국의 대열에 진입하고 있으나, 여러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삶의 질 수준은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에서 1995년에 발표한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은 조사대상 48개 국 중 32위 인 것으로 나타났다(공보처, 1995).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생활의 질적 향상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최근들어 이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소연경 · 문숙재, 1983; 김경동 · 이홍구 · 신도철, 1983; 이기영, 1984; 고보선 · 임정빈, 1992; 고정자 · 김갑숙, 1996; 박미석, 1996), 앞으로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들을 스트레스 이론에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Holmes & Rahe, 1967; Perlin, Menaghan, Lieberman & Mullan, 1981; Schwartzberg & Dytell, 1988; 고정자 · 김갑숙, 1996; 박미석, 1996), 가족자원 및 대처방안들은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로 제시되었다(전영자, 1991; 김영희, 1992; 최규련, 1995; 고정자 · 김갑숙,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요인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스트레스 수준, 가족자원, 대처방안들이 삶의 질에 어떠한 인과적인 관계를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주부의 문제는 주부 개인 뿐 아니라 가정의 행복과 사회적 안녕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기혼여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와의 비교 연구는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들의 삶의 질 수준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떠한 요인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비교 ·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가정의 행복 추구 및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가 사회의 국민복지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응집성, 적응성, 스트레스 인지수준, 대처방안, 및 삶의 질에 대한 차이를 알아본다.

2)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

치는 제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알아본다.

II. 이론적 배경

1. 응집성 · 적응성

Olson과 그의 동료들은 1970년대 후반에 가족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하여 순환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순환모델에서 응집성, 적응성이라고 하는 두가지 차원을 제시하고 있다.

응집성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을 말하며, 응집수준에 따라 과잉분리, 분리, 연결, 밀착의 4단계로 분류된다. 적응성은 가족내 · 외적 필요와 목표에 따라 가족의 규칙, 역할 및 전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로 경직, 구조화, 융통성, 혼돈의 4가지 수준으로 분류된다.

이상의 두차원과 각 영역을 혼합하여 각 유형의 가족체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응집성과 적응성이 중간정도인 가족이 아주 낮거나 아주 높은 극단가족보다 기능적으로 대처한다고 하였다(Olson et al., 1983). 그러나 Beaver & Voleller(1983), Green et al.,(1985) 등은 '증가하는 기능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순환모형의 곡선성을 비판하고 직선적인 관계를 주장하였다. 즉 응집성과 적응성이 많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기능적이라고 하였다. 이에 Olson등은(1991) FACESⅢ에 의한 수정된 가족체계 분류법을 제시하여 직선성을 인정하였다.

응집성, 적응성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arnes & Olson(1985)의 연구에서는 응집성 및 적응성이 높을수록 가족이 더 효율적으로 기능한다고 하였으며, 이현옥 등(1988)의 연구에서도 응집성, 적응성은 스트레스와 부적인 관계를 보여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vee & Olson(1991)은 가족체계유형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가족체계유형과 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응집이 높은 가족이 응집이 낮은 가족보다 스트레스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한다고 하였다.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한 김수연 · 김득성(1994)은 남편의 경우는 응집성이 높을수록, 아내는 적응성이 높을수록 역할갈등이 감소된다고 하였으나, 고정자 · 김갑숙(1996)의 연구에서는 남편 아내 모두 응집성이 낮고 적응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에서 적응성과 응집성이 스트레스에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직선적인 관계가 지지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곡선형을 지지하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한국가족유형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모델이 개발되어져야 하겠다.

2.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살아있는 유기체나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것이다(가족학연구회, 1993). 그러나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은 유기체의 적응능력을 요구하고 적응능력이 부족하면 신체저항력이 감소되어 질병 발생율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여러 분야에서 가족의 위기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스트레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스트레스 개념 정립에 다소 혼란이 있다.

Croog(1970)는 스트레스란 하나 또는 그이상의 스트레스원에 대한 반응으로 개인에게 주어지는 긴장상태라고 하였다. McCubbin & Patterson(1980)은 가족이 기능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인 혹은 지각된 요구의 능력사이의 불균형에서 나타나는 적응 또는 적응적 상태를 요하는 상태라고 하였다. 한편 Lazarus & Folkman(1984)는 스트레스를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환경적 요구의 평가에 대해 대처방안이 부족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한다. 정민자(1992)는 가족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변화, 조건인 가족생활사건에 의해 야기된 긴장이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서 가족이 인지하는 곤란정도나 부담감이라고 하였다.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Hill이 ABCX 모델을

제시하여 이론적 기초를 형성한 후 Burr, Hanson, McCubbin등이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이론을 발달시켜 나갔다. McCubbin은 Hill의 ABCX 이론을 바탕으로, 가족은 하나의 스트레스 보다는 누적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을 경우가 많다고 보고 위기전과 위기후의 상황을 구분하여 다시 Double ABCX Model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의 면을 중시하였고, 위기예방으로서의 자원과 위기를 조절하는 수단으로서의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McCubbin의 이론에 근거하여 위기에 대한 지각으로 스트레스 인지수준을, 가족의 자원으로는 응집성과 적응성을, 그리고 위기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대처방안을 적용시켰다. 그리하여 이상의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적응이라는 결과로 도출되는 부분으로 삶의 질에 촛점을 맞추었다.

3. 대처방안

대처는 가족이 위기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으로서, 또 위기에 대항하는 능동적인 과정으로서 설명되고 있다(McCubbin, 1979). Pearlin & Schooler(1979)는 대처행동을 스트레스원으로 부터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이 행하는 노력과 외적생활 긴장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였고, 이기영 · 구혜령(1992)은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일과 가정이라는 두 영역의 역할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행하는 행동이라고 하였다. Skinner(1983)에 따르면 대처행동은 스트레스에 대한 가족의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가족을 보호하는 가족체계자원들을 강화 유지시키며, 위험한 사건과 이에따른 고통을 감소 시키거나 제거하며,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써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은 개인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다. Lazarus & Folkman(1984)은 문제중심대처행동과 감정중심대처행동으로 분류하였다. 문제중심대처행동은 문제 자체에 초점을 두어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변화시키거나 피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건설적인 대처행동이며, 감정중심대처행동은 불안을 일으키는 상황에 직접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채 불안을 감소하려는 것으로 방어적 대처행동이라 한다. Bell(1977)은 장기적응방법과 단기적응방법으로 분류하였다. 스트레스에 대처할 때 건설적이고 현실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장기적응방법, 일시적으로 긴장을 감소시키는 비현실적이고 파괴적인 방법을 단기 적응방법이라 하였다.

스트레스와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며(김양희 · 전세경, 1989), 정서장애가 있는 집단은 건강한 집단보다 비효율적인 단기적응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ll, 1977; 고성희, 1978). 한편 스트레스에 대한 장기적응방법을 다양하게 많이 사용할수록 신체 및 정신건강지수가 높게 나타났다(박미영, 1985). 이와같이 스트레스에 적응할 때 효율적인 방법으로 적응하면 정서적 안녕을 얻을 수 있지만, 부적절한 적응방법을 사용하면 심리적 장애가 나타나기 쉽다.

4. 삶의 질

삶의 질은 생활표준을 연상케 하는 관심, 태도, 가치, 의미, 목적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모든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므로 개인의 삶의 질을 규명하기는 매우 어렵다(Ronan, 1976; 소연경 · 문숙재, 1983에서 재인용).

삶의 질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객관적인 접근방법으로 평균수입, 교육수준 등 사회적 경제적 지표로서 사회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결과(Jurich et al., 1975; Campbell et al., 1976; Stoeckeler & Gage, 1978)주관적 접근법이 더욱 타당한 척도로 입증됨으로써 최근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생활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개인의 만족감과 생활만족감 등 전반적인 복지에 촛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Rice & Tucker(1986)는 삶의 질은 물질적인 성취나 비물질적인 성취를 통해 인간이 얻게 되는 행복감이나 만족감이라 정의 하였다. Campbell et al.(1976)은 인간의 만족감은 인간이 소

유하고 있는 자원의 객관적인 속성보다는 개인의 특성이나 열망과 같은 비교 기준에 따라 인지되고 평가되어 이것이 삶의 질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즉 삶의 질은 개인이 희망하는 열망과 실제로 누리는 상황인 성취의 차이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다. 한편 김경동과 동료들은(1983) Campbell의 열망이론에 가치를 통합시켜 설명하였다. 즉 삶의 질은 개인의 가치와 삶의 목표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사람들 스스로 경험하는 복지와 즐거움으로 정의하고, 행복감, 삶의 즐거움, 생활영역별 만족감을 종합하여 삶의 질 지표를 구성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삶의 질은 복합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생활경험에서 느낄 수 있는 주관적인 만족감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이었다. 기혼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한 후 취업주부, 비취업주부를 대상으로 임의표집 방법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내용기재가 불명확한 질문지는 제외시키고 최종 취업주부 200명, 비취업주부 205명으로 총 405명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구 분	빈 도	백분율
취업유무	취 업	200	49.4
	비취업	205	50.6
연 령	30세 이하	42	10.4
	31 - 35세	57	14.1
	36 - 40세	74	18.3
	41 - 45세	77	19.0
	46 - 50세	99	24.4
	51세 이상	56	13.8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	65	16.0
	중학교 졸	170	42.0
	고등학교 이상	170	42.0
자 녀 수	없음	12	3.0
	1 명	67	16.5
	2 명	188	46.4
	3 명 이상	138	34.1
가족구조	핵가족	350	86.4
	확대가족	55	13.6
종 교	기독교	68	16.8
	천주교	43	10.6
	불 교	185	45.7
	무 교	108	26.7
	기 타	1	0.2
S·E·S	하	120	29.6
	중	222	54.8
	상	63	15.6

* S·E·S는 6점 척도인 남편의 직업, 교육수준, 가정의 월수입을 합하여 재구성하였다.

2. 측정도구

1) 응집성 적응성 척도

응집성 적응성 척도는 Olson, Portner, & Laves (1985)의 부부용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항상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cronbach's alpha를 이용하여 내적 일치도를 구한 결과 응집성은 취업주부 .89, 비취업주부 .87이었으며 적응성은 .81, .72로 나타났다.

2) 스트레스 척도

스트레스 척도는 선행연구를(Homes & Rahe, 1967; McCubbin, Wilson & Patterson, 1979; 이평숙, 1984) 기초로 하여 문항을 작성하고, 예비조사를 거친후 수정 보완하여 취업주부는 94문항, 비취업주부는 6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경험이 없다에 0점, 경험에 대한 부담이 심각하지 않으면 1점, 심각한 경우는 3점을 주었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취업주부는 .97, 비취업주부는 .94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3) 대처방안

대처방안은 선행연구를(McCubbin, Larsen & Olson, 1982; Bell, 1977)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예비조사 결과 수정하여 4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척도로 전혀 아니다에 1점, 항상 그렇다에 4점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취업주부 .90, 비취업주부 .89로 높게 나타났다.

4) 삶의 질 척도

삶의 질 척도는 Olson & Barnes(1982)의 척도를 번안하여 40문항 중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하여 33문항을 채택하였다. 각 척도는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에 1점, 아주 만족한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의 질에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취업주부, 비취업주부 모두 .91로 아주 높았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PC program에 의해 수행되었다. 측정도구 작성을 위하여 문항분석과 신뢰도계수를 구하였으며,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t-test,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적용시켰다.

Ⅳ. 결 과

1. 두집단 사이의 응집성, 적응성, 스트레스 인지수준, 대처방안과 삶의 질의 차이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응집성, 적응성, 스트레스 인지수준, 대처방안 및 삶의 질은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응집성은 중간수준 이상이나, 적응성은 중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취업상태별로 살펴보면 응집성은 취업주부가(M=3.44) 비취업주부(M=3.04)보다 높았으나, 적응성은 비취업주부가(M=2.30) 취업주부(M=2.13) 보다 높았다.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 보다 높게 나타나 장병옥(1984), 김경아 · 이정우(1990) 등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취업으로 인한 다중역할의 부담감이 작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비취업주부가 오히려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권경희(1986). 남유리(1989)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대처방안은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 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여성이 스트레스가 높으며, 대응방안도 다양하게 사용한다고 한 선행연구와(Hansen, 1979; Skinner, 1983; 김양희 · 전세경, 1989)일치하였다.

삶의 질 수준은 5점 만점에 취업주부는 M=3.04, 비취업주부는 M=2.9로 중간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는 박미금(1994)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공보처(1995)의 여론조사 결과 선진 8개국의 주관적 비물질적 삶의 질에 대한 지표 평균을 100으로 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 수준은 54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취업유무별로는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 보다 삶의 질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안,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전체적인 경향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하위영역별로 세분화시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인과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로모형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표 5〉). 변수중 명목변수로 된 취업동기와 종교유무는 가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으며, 회귀분석에 앞서 변수들간에 상관분석을 한 결과 r=.7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배제되었다.

이 회귀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05수준에서 유의미한 변수만을 인과모형에 도식화하였으며, 각 변인간의 경로계수는 β계수를 사용하였다(〈그림 1〉, 〈그

〈표 2〉 두집단 사이의 차이

	취 업 주 부		비 취 업 주 부		T 값
	문항	M (SD)	문항	M (SD)	
응 집 성	10	34.40(7.51)	10	30.38(7.33)	5.44***
적 응 성	10	21.34(6.64)	10	23.04(5.29)	-2.85**
스트레스	94	94.99(45.03)	69	66.77(28.72)	7.47***
대처방안	49	98.75(16.53)	49	89.98(14.64)	5.64***
삶의 질	33	100.24(15.26)	33	95.77(15.07)	2.96**

** P〈.01 *** P〈.001

〈표 3〉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취업주부)

종속변수 / 독립변수	적응성 β	응집성 β	스트레스 β	대처방안 β	삶의 질 β
주부 교육수준	.226*	-	-	-	-
막내의 연령	.324***	-	-	-.201*	-
자녀수	-	-.241**	-	-	-
남편가사참여도	-	.135*	-	-	-
남편지지도	-	.265***	-	-	-
주부 취업동기	-	-	-.161*	-	-
주부 근무시간	-	-	-	-.127*	-
응집성			-.341***	-	-
적응성			.353***	.362***	.185*
스트레스 수준				.402***	-.393***
대처방안					.204*
R^2	.161	.243	.274	.381	.349

* P〈.05 ** P〈.01 *** P〈.001

가변수: 취업동기(경제적 이유=0, 자아성장=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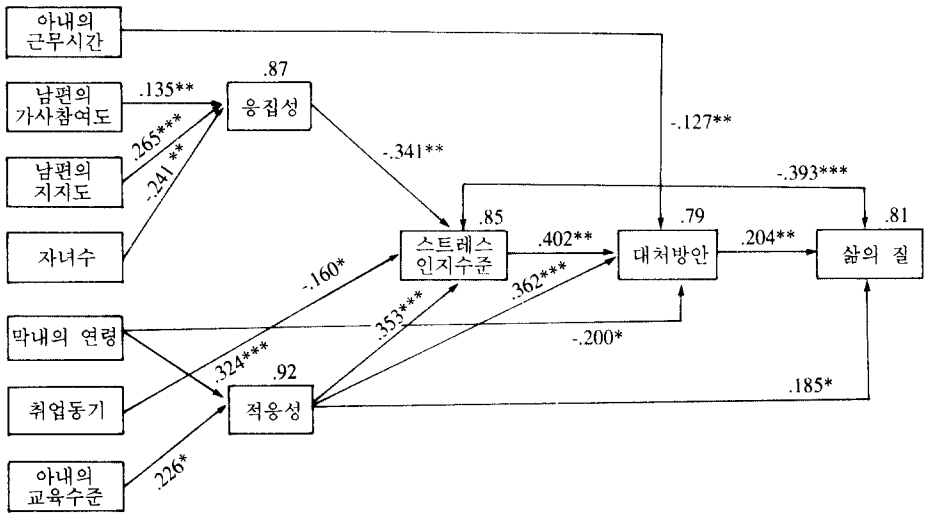
림 2〉).

〈표 3〉과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취업주부의 경우 적응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부의 교육수준, 막내의 연령이었으며, 이 변수들의 설명력은 16.1%였다. 즉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고 막내 연령이 많을수록 규칙이나 역할을 융통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높았다.

응집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녀수, 남편의 가사참여도, 주부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도였다. 즉 자녀수가 적을수록, 남편의 가사참여도가 많을수록, 주부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도가 높을수록 가족간의 결속력이 높았다.

스트레스 인지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수중 적응성이 β=.353으로 영향력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응집성(β=-.341), 주부의 취업동기(β=-.161) 순이었다. 즉 주부가 경제적 이유로 취업한 경우, 응집성이 낮을수록, 적응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였다. 그외 주부의 교육수준, 막내의 연령은 적응성을 통하여 스트레스 인지수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부의 근무시간, 남편의 가사참여도, 자녀수, 남편의 지지도는 응집성을 통하여 스트레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처방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막내의 연령, 주부의 근무시간, 적응성, 스트레스 인지수



〈그림 1〉 취업주부의 인과모형

〈표 4〉 삶의 질에 미치는 인과효과(취업주부)

변 수	총효과	직접효과	간 접 효 과		
			적응성	스트레스	대처방안
주부 교육수준	.042	-	.042	-	-
막내연령	.019	-	.060	-	-.041
주부 근무시간	-.026	-	-	-	-.026
주부 취업동기	.063	-	-	.063	-
응집성	.134	-	-	.134	-
적응성	.077	.185	-	-.182	.074
스트레스 수준	-.311	-.393	-	-	.082
대처방안	.204	.204	-	-	-

준이었으며,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38.1%였다. 즉 막내연령이 어리고, 주부 근무시간이 짧으며, 적응성과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높을수록 대처방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외 취업동기, 응집성은 대처방안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으나 스트레스 수준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한 경우와 응집성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인지하여 대처방안을 많이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적응성, 스트레스 인지수준, 대처방안이었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4.9 %이었다. 즉 적응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인지할수록, 대처방안을 많이 사용할수록 삶의 질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외 주부의 교육수준, 막내의 연령, 주부 근무시간, 주부 취업동기, 응집성 등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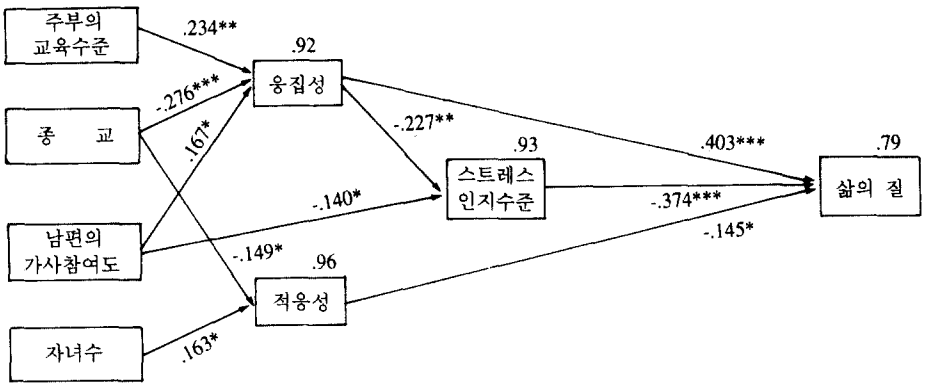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들 변수들의 총 인과효과를 비교해 보면, 스트레스 수준이 β=-.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대처방안(β=.204), 응집성(β=.134), 적응성(β=.077)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응성과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 뿐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적응성은 직접효과가 β=.185이었으나

〈표 5〉 독립변수들의 영향력(비취업주부)

종속변수 / 독립변수	적응성 β	응집성 β	스트레스 β	대처방안 β	삶의 질 β
주부 교육수준	-	.234**	-	-	-
막내의 연령	.163*	-	-	-	-
종 교	-.149*	-.277***	-	-	-
남편가사참여도	-	.167*	-.140*	-	-
응집성			-.227**	.256**	.403***
적응성			-	.157*	-.145*
스트레스 수준				.390***	-.374***
R^2	.082	.151	.137	.320	.369

* P〈.05 ** P〈.01 *** P〈.001

가변수: 종교(유=0, 무=1)



〈그림 2〉 비취업주부의 인과모형

스트레스를 통한 간접효과(β=-.182)로 인하여,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직접효과가 β=-.393이었으나 대처방안을 통한 간접효과로(β=.082) 인하여 영향력이 상쇄되어 오히려 총인과효과가 직접효과보다 낮았다.

비취업주부의 경우는 〈표 5〉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적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막내자녀의 연령과 종교였다. 즉 막내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종교가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규칙이나 역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많았다.

응집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부의 교육수준과 종교, 남편의 가사참여도였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15.1%였다. 즉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 남편의 가사참여도가 높을수록 가족간의 결속력이 높았다.

스트레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남편의 가사참여도, 응집성이었다. 즉 남편의 가사참여도와 응집성이 적을수록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여 김수연 · 김득성(1994)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적응성, 응집성,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대처방안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적응성과 스트레스 수준은 대처방안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삶의 질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표 6〉 삶의 질에 미치는 인과효과(비취업주부)

변 수	총효과	직접 효과	간 접 효 과		
			응집성	적응성	스트레스
주부 교육수준	.094	-	.094	-	-
자 녀 수	-.024	-	-	-.024	-
종 교	-.089	-	-.111	.022	-
남편의 가사참여도	.123	-	.067	-	.056
응집성	.488	.403	-	-	.085
적응성	-.145	-.145	-	-	-
스트레스 인지수준	-.374	-.374	-	-	-

높을수록 대처방안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삶의 질에 대해서는 응집성은 높을수록, 적응성과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낮을수록 만족하고 있다. 그외 주부교육수준, 종교, 남편의 가사참여도는 응집성을 통하여, 종교, 남편의 가사참여도, 자녀수 등은 적응성을 통하여, 남편의 가사참여도와 응집성은 스트레스 수준을 통하여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 변수의 총효과의 크기를 살펴보면(표 6) 응집성은 직접효과(β=.403)와 스트레스 인지수준을 경유한 간접효과(β=.085)를 합하여 총 β=.488로 가장 영향력이 컸으며, 다음은 스트레스 인지수준(β=-.374), 적응성(β=-.145), 남편의 가사참여도(β=.123) 순이었다.

이상에서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해 본 결과 몇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공통점은 두 집단 모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스트레스 인지수준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나 스트레스 인지가 삶의 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변수로 입증되었으며, 여러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하였다(Holmes & Rahe, 1967; Schuartzberg & Dytell, 1988; 전영자, 1991; 김정옥, 1995; 박미석, 1996). 또한 주부의 교육수준은 취업·비취업 주부 모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교육이 삶의 질에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Palmore & Luikart(1972)의 견해와 맥을 같이 한다.

이외 두 집단사이의 흥미로운 차이점은 취업주부의 경우 응집성은 생활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비취업주부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β=.403)을 미쳤다. 또한 적응력은 취업주부의 경우 적응성이 클수록(β=.185) 삶의 질에 만족하고 있는 반면, 비취업주부는 오히려 적응성이 낮을수록 (β=-.145) 삶의 질에 만족하고 있다. 즉 취업주부는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을 때 생활의 질에 만족하나 비취업주부는 응집성은 높고 적응성이 낮을 때 생활의 질에 만족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가족들이 융통성있게 규칙이나 역할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질 때 취업주부는 다중역할에서 오는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취업주부 비취업주부 모두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높을수록 대처방안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적응방법을 많이 사용한다는 김양희·전세경(1989)의 연구와 일치하였으며, 대처방안이 상황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여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Skinner, 1983)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대처방안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은 취업주부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비취업주부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Pearlin & Schooler(1978)도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안이 많을수록 적응능력이 강해지고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스트레스 적응시 부적절한 적응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스트레스에 적응할 때 사용된 대응방법의 수보다는 대응방법의 종류가 중요

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처방안의 빈도에 따른 분석에 그치고 대처방안의 종류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기대되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스트레스에 잘 적응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대처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삶의 질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취업주부 200명, 비취업주부 205명이었으며, 분석방법은 t-test, 상관관계, 중다회귀분석, 경로분석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집성, 적응성, 스트레스 인지수준, 대처방안 그리고 삶의 질 모두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응집성은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 보다 높았으나, 적응성은 비취업주부가 더 높았다. 그리고 취업주부는 비취업주부 보다 스트레스는 많이 받고 있으나, 다양한 대처방안을 사용함으로써 삶의 질에는 더 만족하고 있다.

둘째,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취업주부의 경우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적응성,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대처방안이었으며, 그 외 주부의 교육수준, 막내의 연령, 근무시간, 취업동기, 그리고 응집성은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비취업주부의 경우는 응집성, 적응성, 및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 외 주부의 교육수준, 자녀수, 종교, 남편의 가사참여도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은 일반적으로 지지되었다.

취업주부 비취업주부 모두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쳐 스트레스가 복지의 중요한 예측변수임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취업여부에 따라 주부의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취업여부에 따라 주부가 가정내·외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가치가 서로 다르게 작용하므로, 이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나 생활만족 정도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즉 스트레스 상황을 기능적으로 회복하고 생활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가족구성원과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가정의 상황과 주부의 현실적 상황에 맞는 변수들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스트레스 이론에 근거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경로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스트레스 인지수준, 대처방안, 삶의 질에 대해 전반적인 경향만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변수들의 영역을 세부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가 기대된다. 또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외 다양한 변인들의 관계도 파악하며,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시켜 실시한다면 국가의 국민복지정책에 중요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고보선·임정빈(1992). 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가정생활의 질 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91-208.

2) 고은숙·김명자(1993). 취업부인의 스트레스원, 내외통제성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45-60.

3) 고정자(1994). 맞벌이 부부가족의 가족자원,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4), 97-116.

4) 고정자·김갑숙(1996). 가족응집성, 적응성, 스트레스 수준이 맞벌이 부부의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1), 65-78.
5) 공보처(1995). 세계일류로 가는 길 -21세기 삶의 질 지표-.
6) 권경희(1985). 한국 도시주부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김경아 · 이정우(1990). 기혼여성이 지각한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 수준 및 관련 변인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101-118.
8) 김경동 · 이홍구 · 신도철(1983). 한국인의 가치의식과 삶의 질, 이만갑교수 회갑기념 논총, 461-499.
9) 김수연 · 김득성(1994). 맞벌이 부부의 응집 및 적응이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2(3), 121-134.
10) 김양희 · 전세경(1989).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자원 및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1), 25-42.
11) 김영희(1992). 맞벌이 부부가족에 있어서의 일과 가정생활의 역할 긴장에 관한 이론적 모델 연구: 이론적 모델의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30(2), 139-158.
12) 김정옥(1995). 가족스트레스, 가족체제유형, 가족복지와의 관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3(3), 101-112.
13) 남유리(1988).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스트레스 지각에 관한 비교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박미금(1994). 부부의 생활만족도 비교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2(1), 1-18.
15) 박미석(1996). 중년기 남녀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I,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9-34.
16) 박미영(1985). 스트레스 대처방법이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소연경 · 문숙재(1983). 가정생활의 질 측정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창간호, 43-53.
18) 이기영(1984). 주부가 인지한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3), 111-127.
19) 이평숙(1984). 생활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량 측정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 전영자(1991). 전문직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및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323-344.
21) 정민자(1992). 임상-정상가족의 가족체계 유형 및 가족스트레스,가족자원과 대응책략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2), 189-218.
22) 최규련(1993).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61-84.
23) 최규련(1995).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6), 99-104.
24) 한국가족학연구회(1993). 가족학, 하우출판사.
25) Beavers, W.R. & Voeller, M.N.(1983). Family Model: Comparing and Constrasting the Olson Circumplex Model with the Beavers Systems Model. *Family Process* 22, 85-98.
26) Bell J. M.(1977). Stressful life events and coping methods in mental illness and behaviors. *Nursing Research* 26(2), 136-141.
27) Berry, R. E. & Williams, F. L.(1987).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nd Marital and Income Satisfaction: A Path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9 (Feb.), 107-116.
28) Campbell, Angus, Converse, Philip E. & Rodgers, Willard L.,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Russel Sage Foundation, New York.
29) Holmes, T. H. & Rahe R. H.(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anl of Psychosomisatic Research, Vol.9.
30) Joe, F. Pittman, Sally A. Lloyd(1988). Quality of Family Life, Social Support, and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53-67.
31) Jurich, A. P. & Jurich, J.A.(1975). The Lost Adolescent Syndrome. *Family Coordinator*, 24 (July), 357-361.
32) Lazarus, R. S. & Folkmans,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33) Lavee, Y. & Olson, D. H.(1991). Family types and response to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 786-798.

34) McCubbin, H. I.(1979). Interacting Coping Behavior in Family Stress Theory. *Journal f Marriage and the Family* 41, 237-244.

35) McCubbin, H. I., Wilson, L. & Patterson, J.(1979).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FILE).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the University of Minnesota.

36) Olson, D. H. & Barnes, H.(1982). *Family Inventory of Quality of Life*.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the University of Minnesota.

37) Olson, D, H., Portner, J. & Laves, Y.(1985). FACES Ⅲ. St. Paul: Family Social Sciences. University of Minnesota.

389) Olson, D. H.(1991). Commentary: Three Dimensional(3-D) Circumplex Model and revised scoring of FACES Ⅲ. *Family process* 30, 74-79.

39) Olson, D. H., Sprenkle, D. H. & Russel, C.(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8, 3-28.

40) Parmore, E. & Luikart, C.(1972). Health and social factors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3, 68-80.

41) Pearlin, L.i. & Schooler, C.(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42) Rice, A. S. & Tucker, S. M.(1986). *Family life management*.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43) Schwartzberg, N. S. & Dytell, R. S.(1988). Family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In E. Goldsmith(Ed.) Work and Family: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